

"참정권 준다고 차별 끝나나요" (조선일보 1999.09.10)

[화교 반응] "참정권 준다고 차별 끝나나요"

『저희 후손들만은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.』 서울 중구 중국음식점 「동보성」 사장 이충현(42)씨는 화교 등 장기거주 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권을 준다는 소식에 『법적, 제도적으로 아직 너무 미흡하다』는 반응을 보였다. 그의 출생지는 충남 당진. 이씨의 8 형제 가운데 큰 형과 이씨를 뺀 6 명이 미국 일본 대만 등지로 떠났다. 이씨는 국내 대학들이 입학울 거부하는 바람에 70 년대 말 일본에서 대학(경영학)을 나와야 했다. 화교 고등학교가 정식 고교과정 교육기관으로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.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학교 인정을 막고 있다는 게 화교들의 주장이다.

사진설명 : 서울 남산 동보성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화교 요리사들. 이들은 9 일 "화교들은 중국음식점밖에 할 수 없을만큼 한국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"고 호소했다. (* 이종찬기자 jlee@chosun.com *)

일본 대만 등지에서 유학하고 한국에서 취직한 그의 친구들은 5 년을 못 견디고 외국으로 떠났다. 「장기거주 외국인」인 친구들은 늘 진급 심사에서 누락됐다. 88 년 중국음식점을 시작한 그는 『아직 화교를 「짱꼴라」 라며 무시하는 손님들을 심심찮게 만난다』 고 했다. 이씨는 『형제들이 외국에서 돈을 보내주는 나는 운이 좋은 편』이라며 『대부분의 화교는 한국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최하층』 이라고 말했다. 화교 차별정책으로 해방 초기 10 만여명이던 화교는 현재 1 만 7000 여명으로 줄었다. 서울 소공동, 인천 선린동 등에 번성했던 「차이나타운」 은 모두 사라졌다. 한 화교는 『한국

정부가 재개발한다며 은행에 돈을 공탁해 놓고는 모두 나가라고 했다』며 『그 돈으로 다시 음식점을 내기 어려웠다』고 말했다. 아세아연합신학대 우심화(44) 교수는 『화교들은 백화점 신용카드조차 발급 받을 수 없다』며 『권희로씨가 일본에서 민족차별을 받았다고 하지만, 화교들은 한국에서 더한 박해를 받았다』고 주장했다. 화교들에 대한 차별정책이 국내에 체류하는 소수민족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서 온 해외동포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. 화교들은 주택과 상가를 포함, 200 평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다. 이 제한은 정부가 IMF 이후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자유화하면서 비로소 사라졌다. 화교들은 음식점 이외에 무역, 임대사업 등에 대한 인·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. 90년대 이전에는 법무부에서 2년마다 체류비자를 재발급 받았다. 재발급 기간은 최근 5년으로 바뀌었다. 참정권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. 한성화교협회장 지건번 회장은 『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던 화교들중 상당수는 화폐개혁, 물가양등을 거치면서 파산했다』며 『그나마 성공한 사람들은 외국에 나간 가족들이 보내준 돈으로 사업한 사람들』이라고 말했다. 지 회장은 『군대에 가지 않을 뿐 법대로 세금 내고, 한국 사람과 결혼한 우리 화교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』고 말했다.

(* 장일현기자 ihjang@chosun.com*)

<http://www.chosun.com/svc/news/www/viewArticle.html?id=199909090380>